

로컬라이프

# 군산시, 해양수산 예산 확보 총력

## 군산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군산시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개인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

'읍면동 복지허브화'란 찾아오는 적극적인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에 기존 복지팀과는 별도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주민센터를 복지센터로 변경 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2개동(수송동 나은동)을 우선적으로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 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곤기자

## 수산조정위 열어 수산물처리장 위판장 건립 등 해수부 신청 계획

군산시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시는 8일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해양수산 기관단체 및 어업인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수협 및 어업인이 신청한 2016년 해양수산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2017년 해양수산업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한 내용

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안건으로 ▲2016년도 자율사업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사업' 등 12개 사업 20억2천만원 ▲2017년도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분야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등 28개 사업 280억 원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처리장 시설사업',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어업기재 공동창고 건립', '어촌지역 어선어구 세척장 시

설' 및 '어촌어터널 조성사업' 등 어촌 활력화를 위해 발굴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 심의했으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사업중 민간자율사업은 수협 및 어업인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해 이를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의 후, 대상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금강호 광역수계 물관리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단장 박종만)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금강호 광역수계 물관리 협의회를 8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강호를 주수원으로 용수를 공급받는 군산·익산·김제 평야(18,697ha)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는 전북지역본부, 군산 동진, 익산 및 전주·완주·임실시사의 수자원관리부장을 비롯해 물관리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봄 가뭄에 대비해 각 부서 간의 단계별 대처계획을 점검·조율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풍년영농을 달성하기 위한 완벽한 비상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대 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9회 졸업생 모교 발전기금 1억 기탁·약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 의과대학 9회 졸업생들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 기탁을 약정하고, 1차분으로 5500만 원을 김도종 총장에게 전달했다. 졸업생들을 대표해 지난 7일 총장실을 방문한 의과대학 김용성, 박도심 교수는 "졸업 동문의 뜻을 모아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주고 싶어 의과대학 강동동 신축기금으로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동기들의 뜻이 잘 전달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패를 전달한 김도종 총장은 "후배 사랑을 위한 졸업생들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나날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잘 대처함으로

써 변화의 선두에 서는 의과대학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의과대학 동문은 선후배 간에 결속을 돈독히 하고 모교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기수별로 꾸준히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익산=정왕원기자

## 익산시, 14일~25일 까지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 접수

익산시가 올해 전북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을 오는 14일~25일 까지 시청 교육정보과에서 받는다.

전북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는 다양한 문화를 접한 우수지역 인재들이 미래변화를 주도할수 있도록 창조적 역량과 열린 글로벌 마인드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익산에서는 95명의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자격 대상은 공고일 기준(2016.25) 부 또는 모 기타 보호자와 신청학생이 1년 전부터 계속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초·중·대학생 중 학생 성적이 우수하고 도내 소재하고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jbteam.or.kr) 해외연수생 선발 공고·고시란을 참고 초등학생은 재학학교에, 중학생 및 대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정왕원기자

## 군산수협 수산물가공단지 위판물류동 소유권 포기 논란

군산수협이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위판물류동에 대한 무상임대권과 소유권을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 본보 3월 2일자 8면) 수협은 지난 4일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위판물류동에 대한 3차 입찰에 참여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수협은 군산시의 소유권을 두고 대립해오던 수산물가공거점단지 위판물류동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협이 지난 수 년 동안 주장해왔던 무상임대와 소유권을 어떤 이유에서 포기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그동안 수협은 위판물류동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산시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 수협은 지난 1월부터 진행된 1차 2차 입찰에도 불참한 바

있으며 대책위원회는 위판물류동 운영권과 관련 군산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이 불현듯 3차 입찰에 참여해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현 조합장이 전임 조합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한다"는 등 온갖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전북지역 최초 최첨단 디지털 유방촬영기 (Dimensions Digital Mammography System)

## 익산병원 '최첨단 디지털 유방촬영기 도입

익산병원은 전북지역 최초로 미국 Hologic & Lorad 사의 최신행 제품인 Dimensions Digital Mammography System(디지털 유방촬영기)을 도입,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에 도입한 디지털 유방촬영기는 기존 필름의 해상도를 표현하지 못한 CR type Mammography와 간접방식디텍터의 영상보다 월등히 뛰어난 영상을 구현한다. Matrix 3328x4096 Pixel size 70um로 세밀한 영상을 구현하여 유방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고 또 디텍터의 크기가 대형(24cmx30cm)이어서 큰 유방을

가진 여성의 경우 기존에 2회 촬영했던 것과는 달리 단 한번에 촬영을 끝낼 수 있다. 이밖에 검사 시에 환자들이 받는 방사선량이 현저히 감소돼 안전성이 보장되었으며, 미세한 부분의 병변까지 진단이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을 한층 높게 됐다. 이준 병원장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번 장비 도입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정왕원기자

## 군산대 산하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식생활 교육 실시

군산시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으로 어린이 영양관리에 나선다. 군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군산대 산하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지역내 어린이 급식시설 22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체소 편식 예방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어린이교육은 찾아가는 '현장 방문교육'과 센터 내 교육장으로 찾아오는 '튼튼나라 깨닫네 방' 교육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현장 방문교육'은 채소 섭취를 증대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3~4세 대상 채소도장 광광, 차아속 충치균을 잡아라 ▲5~6세 대상 바다 채소 이야기, 반짝반짝 깨끗한 손 ▲6~7세 대상 전통이랑 절기랑, 식품첨가물 알아보기 ▲8~13세 대상 골고루 먹기, 식중독 예방하기의 주제로 진행된다.

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현장 방문교육'은 채소 섭취를 증대 및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3~4세 대상 채소도장 광광, 차아속 충치균을 잡아라 ▲5~6세 대상 바다 채소 이야기, 반짝반짝 깨끗한 손 ▲6~7세 대상 전통이랑 절기랑, 식품첨가물 알아보기 ▲8~13세 대상 골고루 먹기, 식중독 예방하기의 주제로 진행된다.

/군산=문정곤기자

## 익산시, 내나라여행박람회 참가 여행코스 홍보

익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보석박물관 등 익산의 대표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나선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서울 코레일에서 열리는 2016 내나라여행박람회에 전라북도과 공동으로 참가해 익산의 대표 관광자원과 여행코스 등을 홍보한다.

올해 13회를 맞는 내나라여행박람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박람회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올해는 '내 나라, 새로운 발견을 슬로건으로 300여 기관·단체가 500여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익산시는 전라북도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보석박물관과 더불어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대표적인 관광자원을 적극 알린다. 또 방문객이 직접 체험하고 머물며 소비할 수 있는 익산 맛집과 체험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익산=정왕원기자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리"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쓰면 찌든때와 막힘
- 스물~스물 올라오는 음식물과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하고 싶다면
- 믿을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 (주) 코포스

##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

**"씨서리" 실제 설치!**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